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9)*

-권8, 13:08-14:08 부분을 중심으로-

손명기**

요 약

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『瑜伽師地論』(Yogacārabūmṃmi) 권8 중 13장 8행부터 14장 8행까지의 해독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.

핵심어: 유가사지론, 점토구결

본고에서 해독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三種 雜染[1] 중 '業雜染'의 9가지 연고[2]에서 '分別'에 관한 내용으로, 특히 '妄言'(13:08-13:19)과 '離間語'(13:20-14:08)에 해당한다.[3]

구체적인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A, B, C, D, E로 나누어 제시하였다.
A: 한문 원문과 원문에 현토된 점토와 부호의 위치 및 형태 표시.

---

*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(2003년 3월 26일, 4월 16일)에서 강독한 요지문에,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첨부하여 수정한 것이다.

** 대전대학교 강사.

1) '三種雜染'으로는 '煩惱雜染', '業雜染', '生雜染'이 있다.

2) '煩惱雜染', '業雜染', '生雜染'은 각각 9가지 연고로 '自性, 分別, 因, 位, 門, 上品, 顚倒攝, 差別, 過失'이 있다.

3) 유가사지론 권8의 내용은 박진호(2004:215-219) 참조.

B: 한문 원문에 A의 점토를 자토구결자로 바꾸어 표시.
C: 한문 원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고 생략된 토를 보충[4]하여 자토 석독구결 형식으로 바꾼 것.
D: C의 문장을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.
E: 해당 부분의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.

해독안

<유가08 13:08>
A: 復次諸妄語者[51(·)]者[23~33(··)]此[33(·)]是捻句[22~32(·),55(·)]
B: 復次諸妄語者[ㅣ]者[xㅅㄱ]此[ㄱ]是捻句[ㅐ,ㅿ]
C: 復 次 諸 妄語者(ㅐ)ㅣ{者}xㅅㄱ 此ㄱ 是 捻句ㅐㅿ
D: 또 다음으로 모든 妄語者라 함은, 이는 捻句이며
E: (다음에) 거짓말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,

<유가08 13:08-09>
A: 若王[51(·)][5]者[23~33(··)]謂王家[22~32(·),55(·)]
B: 若王[ㅣ]者[xㅅㄱ]謂王家[ㅐ,ㅿ]
C: 若 王(ㅐ)ㅣ{者}xㅅㄱ 謂 王家ㅐㅿ
D: 王이라 함은, 즉 王家이며
E: 왕이라 함은 왕가이며,

<유가08 13:09-09>
A: 若彼使[51(·)]者[23~33(··)]謂執理家[22~32(·),55(·)]

4) C에서 보충한 토는 ( )로 표시하였다.
5) 점토가 한자의 획 가까이에 기입되어 있다.

B: 若彼使[ㅣ]者[x入ㄱ]謂執理家[ㅢ,ᄀᆞ]
C: 若 彼 使(ㅢ)ㅣ{者}x入ㄱ 謂 執理家ㅢᄀᆞ
D: 그 使라 함은, 즉 執理家이며
E: 그의 심부름꾼이라 함은 일을 맡은 이이며,

<유가08 13:09-10>
A: 若別[51(·)]者[23~33(··)]謂長者[31(·)]居士[31(·),55(·)]
B: 若別[ㅣ]者[x入ㄱ]謂長者[人]居士[人,ᄀᆞ]
C: 若 別(ㅢ)ㅣ{者}x入ㄱ 謂 長者人 居士人(ㅢ)ᄀᆞ
D: 別이라 함은, 즉 長者와 居士이며
E: 다른 이들이라 함은 장자와 거사이며,

<유가08 13:10-10>
A: 若衆[51(·)]者[23~33(··)]謂彼[23(·)]聚集[55(.·)]
B: 若衆[ㅣ]者[x入ㄱ]謂彼[ㅋ]聚集[xᄀᆞ]
C: 若 衆(ㅢ)ㅣ{者}x入ㄱ 謂 彼ㅋ 聚集xᄀᆞ
D: 衆이라 함은, 즉 그곳의 聚集한 이이며
E: 무리라 함은 거기에 모인 이들이며,

<유가08 13:10-11>
A: 若大集中[=51(·)]者[23~33(··)]謂四方人衆[23(·)]聚集處[22~32(·)?,55(·)]
B: 若大集中[ㅣ]者[x入ㄱ]謂四方人衆[ㅋ]聚集處[ㅢ,ᄀᆞ]
C: 若 大集中(ㅢ)ㅣ{者}x入ㄱ 謂 四方 人衆ㅋ 聚集處ㅢᄀᆞ
D: 大集中이라 함은, 즉 四方 人衆의 聚集處이며
E: 크게 모인 가운데서라 함은 사방의 인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,

<유가08 13:11-12>

A: 若已知[51(·)]者[23~33(··)]謂隨前三[34(·),21(·)]所經[33(\),42(·)]語言[22~32(·),55(·)]

B: 若已知[ㅣ]者[xㅅㄱ]謂隨前三[乙,ㅅ]所經[ㅅㄱ,ㄴ]語言[ㅢ,ㅁ]

C: 若 已知(ㅢ)ㅣ{者}xㅅㄱ 謂 前 三乙 隨ㅅ 經ㅅㄱ 所ㄴ 語言ㅢㅁ

D: 已知라 함은, 즉 앞 셋을 따라 겪은 바의 語言이며

E: 이미 알았다 함은 앞의 세 가지 것을 따라 겪게 된 말이며,

<유가08 13:12-13>

A: 若已見[51(·)]者[23~33(··)]謂隨[역독선]曾見[45(\),21(·)]所經[33(\),42(·)]語言[22~32(·),55(·)]

B: 若已見[ㅣ]者[xㅅㄱ]謂隨曾見[xㅅㄹ,ㅅ]所經[ㅅㄱ,ㄴ]語言[ㅢ,ㅁ]

C: 若 已見(ㅢ)ㅣ{者}xㅅㄱ 謂 曾 見xㅅㄹ 隨ㅅ 經ㅅㄱ 所ㄴ 語言ㅢㅁ

D: 已見이라 함은, 즉 일찍이 본 것을 따라 겪은 바의 語言이며

E: 이미 보았다 함은 일찌기 보았던 대로 겪게 된 말이다.

<유가08 13:13-14>

A: 若由自因[34(·),24(·),51(·)]者[23~33(··)]謂[33(·)]或因怖畏[34(·),21(·),35(·)]或因味着[34(·),21(·),35(·),+15~25(/),51(·)]

B: 若由自因[ㄹ,ㅔ,ㅣ]者[xㅅㄱ]謂[ㄱ]或因怖畏[ㄹ,ㅇ,ㅎ]或因味着[ㄹ,ㅇ,ㅎ,xㅊ,ㅣ]

C: 若 自因ㄹ 由ㅔㅣ{者}xㅅㄱ 謂ㄱ 或 怖畏ㄹ 因ㅇ(ㅅ)ㅎ 或 味着ㄹ 因ㅇ(ㅅ)ㅎxㅊㅣ

D: 自因을 말미암다 함은, 즉 혹 怖畏을 말미암아 하고 혹 味着을 말미암아 하고 하는 것이다.

E: 자신의 원인으로 말미암았다 함은 혹은 두려워한 탓이기도 하고 혹은 맛에 집착한 탓이기도 하나니,

<유가08 13:14-15>

A: 如由自[23(·)]因[34(·),22(·),=45(\),11(/)]他因亦亦[=51(·)]

B: 如由自[ㅋ]因[乙,ㅈ,x入乙,ㅅㄱ 夫]他因亦亦[ㅣ]

C: 自ㅋ 因乙 由ㅈx入乙ㅅㄱ {如}夫 他 因 亦 亦(ㅅ)ㅣ

D: 자신의 원인을 말미암아 하는 것과 같이 남의 원인 또한 그러하다.

E: 자신의 원인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다른 이의 원인 역시 그러하다.

<유가08 13:15-16>

A: 因怖畏[34(·),21(·)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謂[33(·)]由怖畏煞縛[35(·)]治罰[35(·)]黜責[35(·)]等故[15~25(\),44~45(/),=24(·),43(·),21(·),지시선(\)[6]](因[25(/),55(·)[7],구분선[8]])

B: 因怖畏[乙,ㅇ,x矣,ㅣ]者[x入ㄱ]謂[ㄱ]由怖畏煞縛[ㅎ]治罰[ㅎ]黜責[ㅎ]等故[x矣,x入乙,ㅔ,ㅠ,ㅅ](因[x矣,ㅿ])

C: 怖畏乙 因ㅇx矣ㅣ{者}x入ㄱ 謂ㄱ 煞縛(ㅅ)ㅎ 治罰(ㅅ)ㅎ 黜責(ㅅ)ㅎ 等x矣 怖畏x入乙 由ㅔ(ㄱ)ㅠ故ㅅx矣ㅿ

D: 怖畏를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煞縛하거나 治罰하거나 黜責하거나 하는 따위를 怖畏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하는 것이며

E: 두려워한 탓이라 함은 죽이고 속박하고 형벌로 다스리고 내쫓고 꾸짖는 따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요,

---

6)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환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경준(2003:203-204) 참조.

7) '因'에 현토된 점토들이지만 앞 글자 '故'에 지시선이 있으므로 '故'에 현토된 것으로 해석한다.

8) 두 글자 사이에 기입된 점토가 어느 글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선을 '구분선'으로 칭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다. 이 경우 '故'와 '因' 사이의 사선(/)이 '因'에 현토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'구분선이 사용되었다.

<유가08 13:16-17>

A: 因([+15~25(/),55(·),구분선])[9]味着[34(·),21(·)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謂爲財穀珎寶等[34(/)[10],+45(/),43(·),삐침선(31,\)]故[21(·),+25#15~25(/),55(·)]

B: 因味着[乙,ㅋ,x矣,ㅣ]者[x入ㄱ]謂爲財穀珎寶等[ㅅㄱ乙,x入乙,ᄆ]故[ㅅ,x矣,分]

C: 味着乙 因ㅋx矣ㅣ{者}x入ㄱ 謂 財穀 珎寶 等ㅅㄱ乙 爲x入乙ᄆ故 ㅅx矣分

D: 味着을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財穀 珎寶 따위를 위한 까닭으로 하는 것이며

E: 맛에 집착한 탓이라 함은 재물과 곡식과 값진 보배 따위를 위한 까닭이며,

<유가08 13:17-18>

A: 知[15~25(·)[11]]而[43(·)]說[역독선]妄語[34(·)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謂覆想欲見[43(·)]而[43(·)]說語言[34(·),+25(/),51(·)]

B: 知[ㅁㅅ]而[ᄆ]說妄語[乙,x矣,ㅣ]者[x入ㄱ]謂覆想欲見[ᄆ]而[ᄆ]說語言[乙,x矣,ㅣ]

C: 知ㅁㅅ 而ᄆ 妄語乙 說x矣ㅣ{者}x入ㄱ 謂 覆想欲見ᄆ 而ᄆ 語言乙 說x矣ㅣ

D: 알고서 妄語를 말하는 것이다 함은, 즉 覆想欲見으로 語言을 말하는 것이다.

E: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 함은 생각을 숨기고 하고 싶어하는 소견으로써 말을 하는 것이다.

---

9) '因'에 현토되어 있지만 앞 문장 새김과 관련 있는 점토들이다.

10) [34~35(/)]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.

11) [25(·)]로 파악하여 '知矣'로 볼 가능성도 있다.

<유가08 13:18-19>

A: 此[42(·)]中[22(·),42(·)]略義[22~32(·)]者[15~25(-),23~33(·)]謂依處[43(·)]故[55(·)]異說[43(·)]故[55(·)]因緣[43(·)]故[55(·)]壞想[43(·)]故[21(·)]而[43(·)]說妄語[34(·),33~43(:)[12]]應知[42(\),51(·)?]

B: 此[ㅌ]中[ㅋ,ㅌ]略義[ㅛ]者[尸,入ㄱ]謂依處[ᄆ]故[分]異說[ᄆ]故[分]因緣[ᄆ]故[分]壞想[ᄆ]故[ノ]而[ᄆ]說妄語[乙,x印]應知[ノ亇七,ㅣ]

C: 此ㅌ 中ㅋㅌ 略義ㅛ{者}尸入ㄱ 謂 依處ᄆ{故}分 異說ᄆ{故}分 因緣ᄆ{故}分 壞想ᄆ故ノ 而ᄆ 妄語乙 說x印 知ノ亇{應}七ㅣ

D: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, 즉 依處 때문이며 異說 때문이며 因緣 때문이며 壞想 때문에 妄語를 말하는 것인 줄, 알아야 할 것이다.

E: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, 의지하는 곳 때문에, 다른 설명 때문에, 인연 때문에, 무너뜨릴 생각 때문에, 거짓말을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.

<유가08 13:20>

A: 復次[23(·)]離間語者[51(·)]者[23~33(··)]此[33(·)]是捻句[22~32(·),55(·)]

B: 復次[ㅋ]離間語者[ㅣ]者[x入ㄱ]此[ㄱ]是捻句[ㅛ,分]

C: 復 次ㅋ 離間語者(ㅛ)ㅣ{者}x入ㄱ 此ㄱ 是 捻句ㅛ分

D: 또 다음으로 離間語者다 함은, 이는 捻句이며

E: (다음에) 이간질의 말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,

<유가08 13:20-21>

A: 若爲破壞[31(·),+15~25(/),=51(·)]者[23~33(··)]謂由破壞意樂[34(·),24(·),43(·)]故[21(·),25(/),55(·)]

12) [33(·),33~43(·)]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.

B: 若爲破壞[ㅅ,x矢,ㅣ]者[xㅅㄱ]謂由破壞意樂[乙,ㅇ,ᄆ]故[ノ,x矢,分]

C: 若 破壞(ン){爲}ㅅンx矢ㅣ{者}xㅅㄱ 謂 破壞意樂乙 由ㅇ(ㄱ)ᄆ故 ノンx矢分

D: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破壞意樂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하는 것이며

E: 파괴하기 위하여서라 함은 파괴하려는 뜻이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3:21-23>

A: 聞彼語[34(·),15~25(-)]已[+15(·)]向此[34(·),22(·)]宣說[35(·)]聞此語[34(·),15~25(-)]已[+15(·)]向彼[34(·),22(·)?]宣說[35(·)?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謂隨所聞[33(\),34(·),21(·)]順乖離[44(·),33(/)]語[34(·),+15~25(/),55(·)]

B: 聞彼語[乙,尸]已[ㅁ]向此[乙,ㅈ]宣說[ㅎ]聞此語[乙,尸]已[ㅁ]向彼[乙,ㅈ]宣說[ㅎ,x矢,ㅣ]者[xㅅㄱ]謂隨所聞[ノㄱ,乙,ノ]順乖離[十,ンㄱ]語[乙,x矢,分]

C: 彼 語乙 聞尸 已(ㅇン)ㅁ 此乙 向(ン)ㅈ 宣說(ン)ㅎ 此 語乙 聞尸 已(ㅇン)ㅁ 彼乙 向(ン)ㅈ 宣說(ン)ㅎx矢ㅣ{者}xㅅㄱ 謂 聞ノㄱ 所乙 隨ノ 乖離十 順ンㄱ 語乙x矢分

D: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을 향하여 宣說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저 사람을 향하여 宣說하고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들은 바를 따라 어긋남에 따르는 말을 하는 것이며

E: 거기의 말을 듣고 이에게 향하여 널리 말하고 여기의 말을 듣고 그에게 향하여 널리 말한다 함은 듣게 됨에 따라서 배반하고 떠나도록 하게 하는 말을 말하며,

<유가08 13:23-14:01>

A: 破壞和合[51(·)]者[23~33(··)]謂能[55(·)?]生起喜別離[34(·),43~53

(:)#43~53(ㅣ)故[55(·)]

B: 破壞和合[ㅣ]者[x入ㄱ]謂能[ㅀ]生起喜別離[乙,xᄼ]故[ㅀ]

C: 破壞和合(ㅐ)ㅣ{者}x入ㄱ 謂 能ㅀ 喜別離乙 生起xᄼ{故}ㅀ

D: 破壞和合이라 함은, 즉 능히 喜別離을 일으키는 까닭이며

E: 함께 어울려 합하여 있는 것을 깨뜨린다 함은 기뻐하면서 이별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<유가08 14:01-02>

A: 隨印別離[51(·)]者[23~33(··)]謂能[55(·)]乖違[44~55(\)]喜[22~32(·)]更[22(·)]生[43~53(ㅣ)]故[55(·)]

B: 隨印別離[ㅣ]者[x入ㄱ]謂能[ㅀ]乖違[x十]喜[ㅐ]更[ㅋ]生[xᄼ]故[ㅀ]

C: 隨印別離(ㅐ)ㅣ{者}x入ㄱ 謂 能ㅀ 乖違x十 喜ㅐ 更ㅋ 生xᄼ{故}ㅀ

D: 隨印別離라 함은, 즉 능히 乖違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다시 생기는 까닭이며

E: 그대로 이별이라는 자취가 남는다 함은 배반하고서도 기쁨이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.

<유가08 14:02-03>

A: 憙壞和合[51(·)]者[23~33(··)]謂於已生[33(/)]喜別離[42(·)]中[44(·)]心染汙[43~53(ㅣ)]故[55(·)]

B: 憙壞和合[ㅣ]者[x入ㄱ]謂於已生[ㄴㄱ]喜別離[ㄷ]中[十]心染汙[xᄼ]故[ㅀ]

C: 憙壞和合(ㅐ)ㅣ{者}x入ㄱ 謂 {於}已 生ㄴㄱ 喜別離ㄷ 中十 心 染汙xᄼ{故}ㅀ

D: 憙壞和合이라 함은, 즉 이미 생겨난 喜別離의 가운데에 마음이 染汙하는 까닭이며

E: 함께 어울려 합하여 있는 것을 기꺼이 무너뜨린다 함은 이미 기뻐

하게 된 이별 가운데서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4:03-04>

A: 樂印別離[51(·)]者[23~33(··)]謂於乖違[44~55(\),24(·)]喜[22~32(·)]更[22(·)]生[24(\),42(·)]中[44(·)]心染汙[43(|)#43(·)]故[55(·)]

B: 樂印別離[ㅣ]者[xㅅㄱ]謂於乖違[xㅓ,ㅕ]喜[ㅛ]更[ㅋ]生[ㄴㅎ,ㄷ]中[ㅓ]心染汙[xᄆ]故[ㅀ]

C: 樂印別離(ㅛ)ㅣ{者}xㅅㄱ 謂 {於}乖違xㅓㅕ 喜ㅛ 更ㅋ 生ㄴㅎㄷ 中ㅓ 心 染汙xᄆ{故}ㅀ

D: 樂印別離라 함은, 즉 乖違한 것에 대해서야 기쁨이 다시 나는 가운데에 마음이 染汙하는 까닭이며

E: 즐거이 이별이라는 자취가 남는다 함은 배반하고서도 기쁨이 다시 소생한 가운데서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기 때문이며

<유가08 14:04-05>

A: 說能離閒語[34(·)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謂或不聞[35(·)]或他[23(·)]方便[43(·),35(·)]故[+45(/),43(·),51(·)]

B: 說能離閒語[ㄷ,xㅊ,ㅣ]者[xㅅㄱ]謂或不聞[ㅎ]或他[ㅋ]方便[ᄆ,ㅎ]故[xㅅㄷ,ᄆ,ㅣ]

C: 能 離閒語ㄷ 說xㅊㅣ{者}xㅅㄱ 謂 或 不聞(ㄴ)ㅎ 或 他ㅋ 方便ᄆ(ㄴ)ㅎxㅅㄷᄆ{故}ㅣ

D: 能 離閒語를 말하는 것이라 함은, 즉 혹 듣지 못하거나 혹 다른 방편으로 하거나 하는 까닭이다.

E: 잘 이간하는 말을 말한다 함은 혹은 듣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방편의 것이기도 한다.

<유가08 14:05-08>

A: 此[42(·)]中[22(·),42(·)]略義[=22~32(·)]者[15~25(-),23~33(·)]謂略[45(·)]顯示離間意樂[31(·)]離間未壞方便[31(·)]離間已壞方便[31(·)]離間染汙心[31(·)]及他方便[31(·),34(·),33~43(:)[13]]應知[42(\),51(·)]

B: 此[ㄴ]中[ㅋ,ㄴ]略義[ㅛ]者[ㅁ,ㅅㄱ]謂略[ㅎ]顯示離間意樂[ㅅ]離間未壞方便[ㅅ]離間已壞方便[ㅅ]離間染汙心[ㅅ]及他方便[ㅅ,ㄹ,x印]應知[ㅅㅎㄴ,ㅣ]

C: 此ㄴ 中ㅋㄴ 略義ㅛ{者}ㅁㅅㄱ 謂 略ㅎ 離間意樂ㅅ 離間未壞方便ㅅ 離間已壞方便ㅅ 離間染汙心ㅅ 及 他方便ㅅㄹ 顯示x印 知ㅅㅎ{應}ㄴㅣ

D: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, 즉 간략히 離間意樂과 離間未壞方便과 離間已壞方便과 離間染汙心과 他方便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, 알아야 할 것이다.

E: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, 이간하려는 뜻과 이간질에 아직 무너뜨리지 못한 방편과 이간질에 이미 무너뜨린 방편과 이간질하는 더러운 마음 및 다른 방편을 간략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 알아야 하리라.

참고문헌

김성주(2005ㄱ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6)」, 『口訣硏究』 14, 구결학회, pp. 213-231.

김성주(2005ㄴ), 「석독구결의 사동 표현」, 『口訣硏究』 14, 구결학회, pp. 147-169.

김영욱(2001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(點吐)의 해독 방법 연구」, 『口訣硏究』 7, 口訣學會, pp. 57-77.

남풍현(2000), 「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」, 『書誌學報』 24, 韓國書誌學

13) [33(·),33~43(·)]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.

會, pp. 5-45.
박진호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2)」, 『口訣硏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15-231.
서민욱(2005ㄱ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5)」, 『口訣硏究』 14, 구결학회, pp. 197-211.
서민욱(2005ㄴ), 『『瑜伽師地論』 卷5·8의 點吐口訣 연구』,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.
李丞宰·安孝卿(2002), 「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-誠庵本 『瑜伽師地論』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-」, 『口訣硏究』 9, 口訣學會, pp. 115-145.
이 용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3)」, 『口訣硏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33-246.
이전경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4)」, 『口訣硏究』 13, 구결학회, pp. 221-242.
장경준(2003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의 '지시선'에 대하여」, 『口訣硏究』 11, 구결학회, pp. 189-209.
장경준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)」, 『口訣硏究』 12, 구결학회, pp. 191-212.
장경준(2005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-권5, 8의 단점(單點)을 중심으로-』,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.

〔305-758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 1105동 1503호〕
E-mail: mkisohn@hanmail.net
접수일자: 2005. 6. 30.
게재결정: 2005. 7. 30.

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u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

-Focusing on vol. Ⅷ, 13:08-14:08-

Son, Myong Gi

This paper surveys the contents of 'You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 vol. 8, 13:08-14:08', and presents a tentative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.

Key words: You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, cipher kugyol(點吐釋讀口訣)